번역학연구
2008년 겨울 제9권 4호

‘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선 영 아
(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번역은, 특히 그것이 실용문의 번역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번역일 경우, 크게 보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명제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낯선 것을 자국의 용어들로 풀이하여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외국텍스트의 낯섦이 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적 차이를 강조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편리한 대로 각각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서로 길항하면서 끊임없는 대립을 거듭해온 이 두 가지 번역의 과제는 그 동안 번역사에서 자유스런 의역 / 충실한 직역, 도착텍스트 중심적 번역 / 출발텍스트 중심적 번역, 자국화 전략 / 외국화 전략의 갈등 관계로 유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54-A00196)

www.kci.go.kr

형화되어 왔으며, 최근의 번역학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적 번역 / 윤리적 번역 혹은 병합 / 탈중심의 대립구도로 변용되어 되풀이된다.

근래 들어 서구 번역학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윤리"의 문제이다. 이는 패권 언어를 중심으로 급속한 "지구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화 간 만남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번역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영미 번역 이론의 한 정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베누티(L. Venuti)와, 그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던 프랑스의 베르만(A. Berman)은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동화시키는 전략을 자국의 지배적 가치를 공고화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낯선 요소가 "전략적으로" 드러나는 문체, 즉 혼종의 문체를 실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의 윤리에 대한 각별한 강조는 오랜 세월 우월적 입장에서 비서구를 번역해 온 서구의 통렬한 자기반성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를 번역하면서 근대를 시작한 동아시아에서의 번역, 더욱이 일본을 거쳐서 번역마저 수입해 온 우리의 경우, 번역의 문제는 분명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제기된다. 자부심이 가득 찬 서구의 번역 전통과는 달리, 애초부터 우리의 번역은 "신성한 원전"에 대한 지고한 경외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시들어가는 모국어를 회생시키고 시급히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임무가 번역에 지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외국문화를 우리의 언어체계 속에 녹여 내는 '동화'의 전략보다는, 성급한 음역 혹은 직역이라는 수용의 전략을 택하게 했다. 번역이 단지 외국의 개념과 사상을 차용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화적 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되었던 것은 오히려 지나친 겸허감, 유난한 '충실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된다.

번역이 문화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번역이 모든 사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 그리고 번역의 방식과 문화의 존재방식 간에는 모종의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 시대에 번역, 특히 문학 번역의 주도적인 양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기 위해서 번역을 세계 문학이라는 큰 틀 안에 놓고 보면, 번역의 목적과 방식은 세계의 문학 지형 안에서 번역가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www.kci.go.kr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족문학이 세계 문학의 지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주변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심적인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공식적인 교리는, 각각의 문화는 독특하며 따라서 문화 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번역 행위에는 여러 겹의 불평등한 관계들이 개입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이 번역가에게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그에게 부여되는 번역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쯤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번역은 규명되어야 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어떤 "보편적인" 번역의 윤리를 상정한다면, 그것은 번역이라는 사회적 실천에는 항상 맥락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어떤 번역이 윤리적이고 어떤 번역이 비윤리적인가를 지레 결정하기보다는, 번역에 부여된 동화와 이화라는 두 가지 힘이 각각 어떠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현되며, 어떻게 번역에 대한 담론들을 구성하고 그것을 실행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앎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번역이 민족문학의 형성이라는 과제와 얽히고 짜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번역 방식의 차이는 곧 다른 문화와 설정했던 관계의 차이이며 또한 동시에 문화의 자기 확립 방식의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문화의 수용과 민족문학의 형성

2. 1. 민족문학과 번역

근대문학의 뿌리에는 번역이 존재한다는 점, 번역을 통해 유입된 타자를 자신의 일부로 삼아 민족문학이 성립된다는 사실은 동서양을 아울러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토착 문학과 번역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그 만남의 방식을 따져 보면, 우리는 번역이 단순히 문화와 문화 간의 만남이 아니라, 다른 생산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경제, 사회, 정치적 동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www.kci.go.kr

19세기 초부터 이미 괴테는 “세계문학(Weltliteratur)”의 태동을 선언하였다[1]. 괴테가 표방한 세계문학은 각 민족문학의 산술적 총합 이상의 것[2]으로, 교통과 기술의 발달이 민족 간의 교류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 속에서 지리학적, 언어적,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문학”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괴테는 이 새롭게 열린 간-문화적 공간 속에서 번역에 부여된 중대한 - 다분히 특권적인 - 임무를 보았다.

> 따라서 각각의 번역가는 이 보편적 정신의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이 일반화된 교역을 진작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중개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번역의 미흡함에 대해 무어라 말하든, 보편적인 세계 교역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임무들 가운데 하나가 번역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 (1827년 칼라일(Carlyle)에게 보낸 서한. 베르만 1995[1984]. 92-93에서 재인용)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적 기억을 가진 각 국민문학들이 세계라는 단일한 영토로 편입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케 하는 균질적 시공간이다. 베르만 (앞의 글 90)의 지적처럼, 세계 문학의 출현이 “‘세계시장(*Weltmakt*)’의 출현과 동시대의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괴테가 세계 문학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교역’이나 ‘거래’라는 표현들은, 그 본래의 이상주의적 지향과는 별도로, 고귀한 정신의 교류에도 세속적 경제의 논리가 예누리 없이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증들이다[3]. 이미 괴테의 시절부터 번역가가 의미의 중립적 전달자가 아니라 문화 간

---

1) “이제 민족문학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세계문학의 시대가 임박했으니 누구나 이 시대를 앞당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임홍배 246에서 재인용)

2) “만일 우리가 하나의 유럽문학, 즉 하나의 보편적인 세계문학을 감히 선포하고자 한다면, 이는 상이한 제 민족이 상호간에 서로의 창작품에 대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세계문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다소간에 새로워지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세계문학이란 이제 차라리 활동적이고 노력하는 문필가들이 서로 사귀며 서로의 성향과 협동정신을 통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서로 고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김완균 187에서 재인용)

www.kci.go.kr

접촉의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정의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번역의 경제학 혹은 정치학으로 향하도록 만든다.

괴테 이후, 수많은 이들이 '교환'의 이미지에 기대어 번역을 설명해왔다.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 자본(capital culturel)"의 개념을 번역학에 도입한 구앙빅(J.-M. Gouanvic)은, 여타 다른 생산 활동과 마찬가지로 외국 텍스트의 번역과 유통 과정 또한 시장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해주었다. 번역가 개인의 "윤리"만이 아니라 번역 행위와 관련된 경제, 사회, 정치적 가치들이 더불어 고찰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번역 주체의 윤리 문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번역을 바라볼 경우, 번역을 결정짓는 층위의 다양성과 사회와의 관계망이 후경화(後景化)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 2. 중심과 변방

『바벨 이후』(*After Babel*)에서 스타이너(G. Steiner)는 "손실 없는 교환"(411), 원천 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완벽한 대칭"을 번역의 이상으로 상정하였다. 스타이너에 따르자면,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간에 "힘의 균형"을 재창조해내는 것, 그리하여 호혜성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번역기술과 번역윤리의 핵심"(408)이다.

번역이 두 언어-문화 간의 대등한 상호 교환일 수 있다면, 스타이너의 생각 그대로, "공평성의 책무"는 번역의 "충실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손에 잡히는" 구체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적 등가물의 창조 역시 두 공동체 사이의 역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니란자나(T. Niranjana)와 같은 이는 스타이너의 이론이 번역 과정에 각인되어 있는 비대칭적 힘의 관계를 은폐하며, 식민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의견임을 강조한다(59-61)[4]. 사실 힘의 논리가 완전히 배제된 이상

3) 이와 관련하여 임홍배(249)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괴테는 세계문학의 역할을 나라간의 무역에 견주었는데, '갈수록 더 전면적인 양상을 띠는 상업 및 무역 활동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발언도 한다. 이는 한낱 비유나 실언이 아니라 우선 세계문학을 조건 짓는 근대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4) "translation is an over-arching metaphor for the unequal power-relationship which

www.kci.go.kr

적인 상황, 더욱이 그것이 지배 / 피지배의 상황에서라면,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등가교환으로서의 번역에 참여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문면 그대로 신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5].

그러나 번역에 투영된 문화 간의 위계질서는 단순히 지배 / 피지배 관계의 단일한 서술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번역이 문화 간의 만남 혹은 접촉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 변환을 가져오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출발어가 세계문학의 중심부에 위치한 패권언어일 경우, 번역은 중심의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함으로써, 안에서 밖으로의 '팽창'을 돕는 역할을 한다. 번역을 통해 중심의 문학은 '세계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해 나간다. 요컨대 번역은 중심이 자신의 문학 원리를 주변부에 강요하는, 아주 교묘한 (문화적) 정복의 한 형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을 제국주의의 채널로만 보는 것은 번역이 지닌 역동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번역은 제국 편에서는 식민화의 필수도구이면서, 한편으로 근대화의 요구에 처한 피식민 혹은 주변국에게도 근대성의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요청"(윤지관 29)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주변부의 위치를 강요당하는 번역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번역행위가 단순한 답습이나 수용은 아니라는 점, 번역이 "항상 자국의 전통에 의한 외래문화의 변용"(가토 슈이치, 『번역과 일본의 근대』, 179)의 계기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반면, 출발어가 주변부의 위치에 있을 때, 즉 번역이 주변부에서 중심의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도착권인 중심부는 번역을 통해 주변부의 문화적 재료들을 섭취하여 자기 문화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흡수' 혹은 '병합'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 때 번역은 특히 주변부 작가들,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

defines the condition of the colonized"(트리베디(H. Trivedi) 12에서 재인용).

5) 메헤레즈(S. Mehrez)는 "The translation and the postcolonial experience: the francophone north african text"(1992)라는 논문의 서두에서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자발적 다국어사용자 스타이너와, 3개 국어 (집에서 사용하는 모로코어, 학교에서 습득한 고전 아랍어, 식민주의자들의 언어인 프랑스어)의 사용을 "강요당한" 모로코 작가 카티비(A. Khatibi)의 개인사를 비교한 뒤, 『바벨 이후』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한계들"의 원인을 언어 습득을 구조화하는 정치적 맥락과 권력관계에 대한 성찰의 부재에서 찾는다(120-121).

www.kci.go.kr

서도 지배적인 미학논리의 범주를 재현하는 데 성공한 변방의 작가들을 "발굴"하는 중요한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 어떠한 형태로든 번역의 문제와 마주서야 한다는 것은 소수 언어로 글을 쓰는 모든 작가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세계 체제의 주변부에서 태어났다는 불편함을 가진 모든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읽힐'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 따라서 지역성을 극복하고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유수 언어들로 번역될 필요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난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이 세계무대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작품이 번역되어 서구 평단의 승인을 얻게 되면서부터이다.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J. L. Borges)는 자신을 "프랑스의 발명품(Invention de la France)"이라고까지 칭한 바 있다. 비서구인으로서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타고르(Tagore)가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벵골어로 쓰인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영역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번역을 통한 "발굴"에는 "모종의 승인과 배제"(베누티, 『번역의 윤리』, 120)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번역 대상 텍스트의 선별과정에서부터 중심의 준거에 따른 취사선택이 이루어지며, 제국의 시선은 자신의 문학적 취향과 규범에 부합되는 몇몇 특정 작가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기 마련이다. 1988년 아랍어 권에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이집트의 작가 마푸즈(N. Mahfouz)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마푸즈의 작품이 서구에서 비평가들의 호평과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글이 서구의 문학적 규범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관한 서구의 고정관념을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단순히 힘 있는 자의 무기로만 작용하는 것은

6) 서구의 눈 아래 놓인 동양은 늘 신비롭고 이국적인 공간으로 표상된다. 프랑스와 이집트간의 불평등한 번역 양태에 관심을 가졌던 자크몬드(R. Jacquemond)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특정한 양상의 번역 전략을 동반하게 되는데, 대체로 서구어로 번역된 동양의 작품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학적인 직역"으로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강요하는 갖가지 비평도구(서문과 주해)로 무장되어 있다. 범속한 독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러한 난해성은 결국 완전히 이질적이고 소통 불가능한 타자로서의 오리엔트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뿐이다.

www.kci.go.kr

아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번역에 동원된 쪽에도 반격의 기회가 없지 않다. 지배의 장소였던 번역을 탈식민화의 도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들로 니란자나는 '재번역(re-translation)'[7]을, 바바(H. Bhabha)는 '잡종성(hybridity)'[8]을 이야기한다. 이들의 명제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러한 논의들은 번역의 내부에 숨겨진 저항의 힘을 부각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번역에 대한 최근의 성찰을 진일보시킨 포스트식민주의, 폴리시스템 이론, 사회 비평과 같은 일련의 이론은, 비록 모두가 동일한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동일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번역 텍스트에 내재된 사회성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번역과 사회 문화적 요소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 즉 번역이 생산되고 읽히고 나아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3. 동화(同化)와 이화(異化)

앞서 잠깐 비추었듯이, 번역을 통해서 낯선 것을 만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번역사에서 자주 참조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자국의 규범에 맞춰 텍스트를 동화시키도록 번역가들을 부추겼던 고전주의시대 프랑스의 번역방식과,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외국어의 차용을 통한 모국어의 확장을 절대원칙으로 삼는 독일 낭만주의 번역이론이다. 전자에서는 폐쇄적인 자민족중심주의가, 후자에서는 낯선 것에 대한 환대의 윤리가 강렬하게 드러나며 서로

7) 번역을 "문화 간 대화"로 규정하는 "휴머니즘적" 수사법이 서구의 식민 기획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니란자나(186)는 피정복자의 관점에서 번역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을 제안한다.

8) 바바는 경계 짓기를 통해 존재하던 기존의 공동체가 아닌 "제 3의 영역"이라는 틈새 영역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전지구화 시대에는 경계의 붕괴로 인해 전통적인 의미의 번역은 불가능해지지만, 포스트 식민 사회 전체가 번역의 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번역은 더 이상 소수의 전문자들이 수행하는 언어 간 의미의 전달이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기초이며, 번역이 산출하는 잡종성은 패권적 가치들에 대해 일련의 변주를 가함으로써 그것들을 위반하는 '투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바의 주장이다.

www.kci.go.kr

대립된다는 것이, 양자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그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최소한 좀 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라도 잠시나마 그 자명함에 대해 따져보며, 서로 대립하는 항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절점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3. 1. 동화의 모델: 프랑스의 사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유려하긴 하지만 원작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을 단죄하기 위한 낙인으로 사용되는 "부정(不貞)한 미녀들(Belles infidèles)"이라는 표현은 아주 대담한 태도로 그리스, 라틴 고전들의 번안을 감행했던 17세기 프랑스 번역가들에게서 유래되었다. 당시의 번역가들이 자국의 문화를 살찌우기 위해 외국의 것을 들여오되, 번역 과정에서 외국 작품의 생경함을 지우고 그것을 프랑스적 풍토에 맞게 동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은 두루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부정한 미녀들"의 경향이 우세했던 것은 아니다. 프랑스어가 아직 형성 단계에 있던 르네상스기에, 아미요(J. Amyot)와 같은 번역가들은 외래어의 차용과 신조어의 사용을 통해 프랑스어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랑송(G. Lanson)은 아미요의 『플루타르크 영웅전』(*Vies parallèles des hommes illustres*, 1559)을 프랑스어가 고전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쏟은 노력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랑스어가 근대어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번역이 행한 공헌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반(反)번역론의 효시로 알려진 뒤 벨레(J. du Bellay)의 『프랑스어의 옹호와 현양』(*La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1549)에서도 "만약 로마인들이 번역 작업에 열중하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풍요롭게 해서, 그리스어와 대등한 것으로까지 만들 수 있었겠는가?"라는, 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대목들과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프랑스 르네상스를 일구어낸 번역이 어떻게 돌연 창작의 적으로 지목되며, 민족문학과 번역을 연결시켜주었던 탯줄이 끊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프랑스의 쇼비니즘을 탓하는 단방향적인 시각만으로는 사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www.kci.go.kr

16세기 프랑스에서의 번역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전유(appropriation)"(베르만 1992, 12)가 될 것이다. 남의 것을 취해 자기 것으로 삼는 전유의 과정은 세 단계를 밟아 갔는데, 외국 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절차를 거쳐, 자기의 것을 창출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뒤 벨레의 『옹호와 현양』에는 이 세 단계에 부합되는 담론들이, 동일한 비중으로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뒤섞여 흩뿌려져 있다. 이 작은 선언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마도 그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사실 『옹호와 현양』에서 뒤 벨레가 번역을 공격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앞 세대의 축자역, 마로(C. Marot) 식의 "나쁜" 번역이었다는 지적[9]은 옳다. 따라서 뒤 벨레의 주장을 번역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이지만, 그가 번역을 상대로 "의혹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에서 번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의 등장과 프랑스어의 자기 확립의 움직임을 연동시키는 베르만의 통찰은 그 설득력을 잃지 않는다.

> "이 변화의 근거는 다름 아닌 우리말의 자기 확립이다. 아미요와 16세기의 모든 번역가들은 프랑스어를 풍요롭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가령 독일적 전통에서처럼 죽 계승되기는커녕, 프랑스어를 다른 것과의 섞임이 없는 하나의 닫힌 체계로 만들려는 순간부터 단절되고 만다. 이 순간부터 번역한다는 것은 우리 언어의 "정수"를 거스르는 오염의 행위처럼 비춰지게 된다. [...] 달리 말하자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번역의 본질 전체가 프랑스 문화와는 지속적으로 낯선 것으로 변화한다." (베르만 1986, 217)

베르만의 지적처럼, 16세기 번역이 겪었던 급작스러운 평가 절하는 프랑스 문학의 자기 형성의 의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당시 프랑스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었다는 점[10]과, 그 안에는 근

9) 가령 손주경은 "뒤벨레가 생각한 번역이 불가능성"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명되어"(220) 왔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가 번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은 단지 번역이라는 '문학의 한 장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옹호』는 그 자체로서 돌레의 『방법』에 대한 일종의 답, 즉 '잘 번역하기'의 '잘'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부를 수 있다."(209)

10) 빌레(P. Villey)가 쓴 『조아셍 뒤 벨레의 '프랑스어의 옹호와 현양'의 이탈리아 출전

www.kci.go.kr

대적 주체와 근대 문학의 성립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겠다.

뒤 벨레는 일종의 번역비판론의 형태로 자신의 문학론을 진술하면서, 민족 문학의 이념적 원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민족 문학의 성립이 아직 과제로서 주어져 있던 근대 형성기의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을 글쓰기의 언어로 삼을 것이며, 어떤 언어로 글을 써야 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었다. 플레이야드파는 그들이 라틴어라는 신성 언어[11]의 권위에 맞서 '속어'인 프랑스어의 배타적 사용을 주장하고 새로운 문학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민족 문학 성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는다.

당시 뒤 벨레를 비롯한 젊은 플레이야드 시인들에게 있어, 이미 프랑스어는 더 이상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통해 흡수된 자연스러운 표현의 공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근대어의 모범이자 기준이 되기를 희망했다. 죽은 고대어, 학습을 통해 익힌 인위적 언어로 글쓰기를 고집하는 문필가들에 맞서, 우선 그들은 모든 언어가 동등함을, 따라서 제대로 된 번역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고전어로 표현된 모든 것이 근대인의 언어로 옮겨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12].

』(*Les sources italiennes de la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1908)에 따르면, 뒤 벨레는 자신의 팸플릿에서 스페로니(S. Speroni)가 이탈리아어의 옹호를 위해 쓴 『언어들 간의 대화』(*Dialogo delle lingue*, 1542)를 몇 페이지씩 그대로 베껴 왔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옹호와 현양』은 프랑스의 독창적인 산물이 아니라, 이탈리아로부터 '빌려 온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번역을 통과하면서 "속어들(langues vernaculaires)"의 지위가 "국어(langue nationale)"로 전화된 것은 르네상스 유럽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동시대 영국과 이탈리아의 번역 풍토 역시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대 언어의 출현에 관해서는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을, 16세기 번역의 전반적 양상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위해서는 우스티노프(M. Oustinoff 32-40) 참조.

11) 블로흐(M. Bloch) (『중세 사회』(*La société féodale*, 1939)에 따르면 중세 서유럽에서 라틴어는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지는 유일한 언어"였다. 또 페브르(L. Fèvre)와 마르탱(H.-J. Martin) (『서적의 등장』, (*Apparition du livre*, 1957)에 따르면, 1501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88권의 책 중 8권을 제외한 모든 책이 라틴어로 씌어졌다. (앤더슨 40에서 재인용)

12) 프랑스어가 근대의 글쓰기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언어 사용자들이 문명의

www.kci.go.kr

일단 프랑스어의 표현 가능성이 입증되면, 프랑스어에 글쓰기 언어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프랑스어가 고유한 특성을 지닌 독자적 언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뒤 벨레는 번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라틴어와 라틴어의 대체물인 번역이 형성 중인 프랑스어를 정련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한다[13]는 판단에서, 뒤 벨레는 번역을 창작의 활동에서 배제시킨다. 뒤 벨레의 눈에 비친 번역이란, 지식을 운반할 수는 있으나, 모국어의 섬세한 결을 만들어내는 데도, 새롭게 발견된 근대적 주체의 감성과 의식을 담아내는 데도 적합지 않은 "노예적" 노동일뿐이다[14].

"〔...〕 번역가의 의무와 열성은 외국어를 모르는 자들에게 사물에 대한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며, 따라서 이 문제는 17세기 말의 프랑스를 뒤흔든 '신구(新旧) 논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13) 블로흐에 따르면, "프랑스어는 타락한 형태의 라틴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도, 품위 있는 글쓰기 언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프랑스어가 사법부의 공식적인 언어가 된 것은 프랑수와 1세가 빌레르 코트레 칙령을 선포한 1539년의 일이다. 그러나 17세기의 데카르트(R. Descartes)와 파스칼(B. Pascal)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신왕래를 라틴어로 했다.

14) 『옹호와 현양』의 제 1권의 목차를 훑어보면 작가의 논리를 따라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제 1권I

ch. 1: 언어들의 기원에 관하여
ch. 2: 프랑스어는 야만적이라고 불려서는 안된다
ch. 3: 왜 프랑스어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만큼 풍부하지 못하는가
ch. 4: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프랑스어가 빈곤하지 않다는 사실
ch. 5: 번역은 프랑스어에 완벽성을 부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ch. 6: 나쁜 번역가들에 관하여, 그리고 시인들을 번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ch. 7: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풍요롭게 만들었는가
ch. 8: 고대 그리스 라틴 작가들의 모방을 통해 프랑스어를 확장시키기
ch. 9: 몇 가지 반박에 대한 답변
ch. 10: 프랑스어가 철학에 무능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왜 고대인들은 우리 시대의 인간들보다 더 박식했는가
ch. 11: 고대인들을 그들의 언어에서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ch. 12: 저자에 대한 옹호

www.kci.go.kr

>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 손질을 가하는 것과 같은 완벽성을 모국어에 부여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 (뒤 벨레, ch. V)

> "그러나 번역이라는 이 칭송할만한 노역이 우리의 속어를 보다 더 명성 높은 다른 언어들과 대등한 것, 그것들의 전범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곳)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의 형성에 기여했던 번역은 프랑스어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문학 언어로 수립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애물로서 인식된다. 언어민족주의가 외래요소를 솎아 내는 방식으로 발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도 아니다.

이후 변화한 것은 단순히 프랑스어의 공식적 위상만이 아니다. 시인-작가에 부여된 직무가 변하고, 번역에 대하여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다. 뒤 벨레가 "시인들"에게 부여한 임무란, 고대의 유산들을 "집어삼키고(dévorant)", 그것들을 잘 "소화"한 다음, "피와 영양분"으로 전환시켜 자국어와 자국문학을 "살찌우는" 작업[15]이다.

놀라운 먹성으로 외국 문화를 흡수하고 그것을 프랑스어로 녹여낸 덕택으로, 약 1세기 만에 프랑스어는 새롭게 전 유럽의 교양어로 등극하게 된다. "언젠가는 프랑스어가, 라틴어가 차지했던 지위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앞의 글 제 2권, ch. VI-X.)라는 뒤 벨레의 예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고전주의 시대, 프랑스의 문화가 성년기에 접어들어, 프랑스가 자신들의 문화적 위세로 인해 더 이상 외국의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번역에 있어서도 자기중심주의가 두드러지게 된다. 당대의 주류 번역가들은 궁정 독자의 취향에 맞추어 원작의 첨삭과 개작, 미화[16]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

---

15) "최고의 그리스의 작가들을 모방하면서 그들로 변신하고 그들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그들을 잘 소화시킨 다음 그들을 피와 영양분으로 전환시키기" ; "외국어로부터 문장들과 낱말들을 빌려서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기"

16) "나는 가장 불결한 곳을 삭제했고, 몇몇 곳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인 것을 순화시켰다. 〔...〕 따라서 나는 이 작가의 말과 사상에 언제나 집착했던 것은 아니며, 그의 의도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방식에 맞춰 사태들을 배열하였다.

www.kci.go.kr

진 사실이다. 말레르브를 위시한 언어학자들이 17세기 프랑스 특유의 편협성으로 언어의 규범을 세우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이다[17].

'프랑스 번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돌레(E. Dolet)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올바르게 번역하는 방법』(*De la manière de bien traduire d'une langue en l'aultr*e, 1540)을 발표한지 정확히 100년 뒤인 1640년, '부정한 미녀들'의 상징적 인물로 간주되는 다블랑쿠르(P. d'Ablancourt)는 "원작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은 한발 한발 그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자신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낸 아름다움을 다른 언어 속에서 복원해 내는 것"(쥐베르(R. Zuber) 128에서 재인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충실한 축어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안'이 훨씬 가치 있는 작업이라는 것의 그의 주장의 요체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다블랑쿠르는 자신의 지나치게 "자유로운" 의역이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행여나 내가 취한 방종들을 번역의 규범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내 안에 있다고는 믿지 말아"(반 호프(Van Hoof) 49에서 재인용) 달라는 그의 당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는 서문이나 역주 등의 공간을 통해 자신이 행한 갖가지 변형들을 독자에게 일러두기를 잊지 않았다.

다블랑쿠르의 번역이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충실하지" 않은 번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베르만의 말(1995, 92)에 따르자면 "원본의 텍스트성에 상응하는" 텍스트, 즉 "작품"으로서의 번역을 생산해낸 그의 번역의 가치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

이쯤에서 앞서 인용된 베르만의 글로 되돌아가도록 하자. 『프랑스의 옹호와 현양』에서 그 맹아를 찾을 수 있는 프랑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역사를 관통해

시대마다 단지 말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사고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원한다." (다블랑쿠르, 「콘라르 씨에게 보내는 서한」(Epître à Monsieur Conrart), 발라르 1992, 172에서 재인용).

17) "독단적 학파의 수장으로서 프랑수와 드 말레르브는 프랑스어와 시의 공식적 기준들을 개혁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프랑스어의 진정한 순화를 시행함으로써 그는 글쓰기의 방식을 강요하였고 따라서 이를 테면 고전 시의 번역이 존중해야할 틀을 만들어낸 셈이다." (발라르 앞의 글 151)

www.kci.go.kr

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는 베르만의 비판은 수긍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자면, 그러한 태도는 프랑스 문화의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문화에 대해 취했던 태도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거듭 강조하다시피, 그것은 프랑스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여느 패권문화에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임을 덧붙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베르만의 통찰력 있는 지적이 언어와 문학의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한 문명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2) 이화의 모델 - 독일 낭만주의의 사례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의 번역이 외국 작품의 생경함을 지우고 그것을 프랑스적 풍토에 맞게 동화시키려고 했다면,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이상화한 번역은 원전에 대한 정확성을 중시하는 "충실한" 번역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안정적 지위에 있는 문화는 자국의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며,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동화시키는 반면에, 아직 형성 중인 문화, 혹은 위기의 국면에 놓인 문화는 좀 더 열린 자세로 다른 것을 수용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18]. 다른 유럽 국가에서 민족문학의 형성이 진행되던 기간 동안에도, 독일의 경우에는 라틴어가 모든 문학 활동을 독점하면서 민족문학의 형성에 뒤쳐져 있던 실정이었다.

민족 문학을 건설하려는 열망에 찬 독일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번역은 그때까지 독일어에 결핍되어 있던 "교양"을 획득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언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여겼던 언어자산이 독일어에서는 "낯선 것의 시련"을 거친 후에야 얻어질 수 있는 열매로 보였던 것이다[19]. 따라서 그들은 "프랑스적 취향"을 특징짓는 유려함과 가독성 대신에, 가급적 원문에 가깝게 옮기는 번역, 모국어를 거역하면서라도 출발어를 모방하여 독일어에 예술성과 품격을 불어넣는 번역을 지향하였다. 문화적 "이식"을

18) 랑베르(J. Lambert) 153 참조.

19) 1813년 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는 "우리 언어 가운데 아름답고 힘찬 것들 중 대부분은 번역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또한 번역에 의해 얻어졌다"(베누티 135에서 재인용)고 밝힌 바 있다.

www.kci.go.kr

통한 모국어의 확장에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충실성”에 역점을 둔 번역이었기 때문이다. 노발리스(Novalis)는 독일어를 프랑스어화하고, 포스(Voss)는 독일어를 그리스어화함으로써 독일어의 경계를 넓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번역이 원문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20] 하에서,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프랑스식’ 번역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다.

> 그들은 마치 모든 외국인이 자기들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풍속에 맞춰 행동하고 옷 입기를 바라는 듯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엄밀히 말해 그들은 외국의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슐레겔(A. W. Schlegel). 베르만 [1984] 1995, 62에서 재인용).

흥미로운 점은 애초부터 독일 낭만주의의 번역론이 “의식적으로 프랑스식 번역에 대립 각을 세우면서”(베르만 앞의 책 62)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윤리적” 번역관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 낭만주의 번역관은 기실 독일인들의 야심적인 문화적 기획과 깊이 연계되어 있었고 프랑스와 독일간의 역사적 경쟁관계 속에서 구상된 것이다. 안미현(35)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번역에 관한 그들의 치열한 사고,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특수성과 한계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문학이 처해 있던 ‘궁핍한 시대(dürftige Zeit)’의 현실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현상적으로는 19세기 독일에서의 번역 운동이 17-18세기의 프랑스의 ‘부정한 미녀들’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둘 사이에서－최소한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어떤 상동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다. 16세기 프랑스의 플레이야드 학파가 라틴어의 권위에 맞서 프랑스어의 자존을 내세웠듯이, 낭만주의 시대의 독일 지식인들은 독일어를 국제적 문학어로 격상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다. 괴테는 그의 모국어가 “모든 민족이 자신의 상품을 진열하는 시장(市場)”(베르만 앞의 책 92에서 재인용)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라틴어가 중세 유럽의 공통

20) “[...] 그럼 번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번역은 미화될 수 없다.”(헤르더, 『단편들』, 베르만 앞의 책 69에서 재인용)

www.kci.go.kr

문어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 프랑스어가 문화를 실어 나르는 보편 언어였던 것처럼, 독일어의 지위가 학문 - 문예 분야의 문명어로 전환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를 염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한 언어의 힘은 외국의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어삼키는 것 La force d'une langue n'est pas de repousser l'étranger, mais de le *dévorer*" (앞의 책 26에서 재인용. 인용자 강조)이라는 괴테의 문장에서, 번역을 자양분의 섭취에 빗대었던 뒤 벨레의 메타포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의지한 문화적 자존의 이념은, 저항적이든 패권적이든, 일종의 민족주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누티는 "외국 텍스트를 흡수함으로써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겠다는 분명한 의도 하에 기획된 번역 프로젝트"(134)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번역을 꼽으며, 슐라이어마허가 채택한 소위 "낯설게 하는 번역"의 전략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하지만 슐라이어마허가 낯설게 하는 번역을 지지한 속뜻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모종의 민족주의적 정치 의제에 봉사하기 위함이었다. 즉 그가 살던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 프랑스는 정치, 문화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었고, 슐라이어마허는 이러한 종류의 번역이 프랑스의 정치, 문화적 패권에 대한 프로이센의 도전의 일환으로서의 독일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316)

그리고 베누티는 이러한 태도가 순진한 문화적 국수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 "그런데 그의 민족주의는 후에 세계 지배의 비전으로 변질되게 될 인종적 우월주의에 대한 믿음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슐라이어마허는 독일 민족은 "외국 것에 대한 존중과 독일 민족의 중개적인 본질로 말미암아" 세계 문학 정전을 독일어로 보전해야 하는 "운명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316)

그 시초에서는 외국 텍스트의 낯섦을 보존하려던 독일의 번역 경향은 이후

www.kci.go.kr

점차 제국주의화 되어가면서 결국 또 다른 자민족중심주의로 귀착되기에 이른다. 20세기 초 판비츠(R. Pannwitz)가 『유럽 문화의 위기』(*Die Krisis der europaeischen Kultur*, 1917)에서 자국의 번역풍토에 관해 개진한 아래 비판은, 앞서 인용된 "프랑스식 번역"에 대한 독일 낭만주의자들의 비판과 합치된다.

> "우리의 번역들은, 비록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 번역은 독일어를 산스크리트어화, 희랍어화, 영어화 하는 대신에, 산스크리트어, 희랍어, 영어를 독일어화하고 있다. 이들 번역은 외국 작품의 정신보다 자기들 언어의 관습에 대해 한결 더 심각한 경외감을 품고 있다. 〔...〕 번역가의 근본적인 잘못은 외국어의 강한 충동에 자기 언어를 맡기는 대신, 자기 언어의 우발적인 상태를 고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번역가가 자신의 언어와 아주 멀리 떨어진 언어로부터 번역을 할 때는, 언어 자체의 근본 요소로까지, 말과 이미지와 성조가 합류하는 그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는 외국어에 힘입어 자기 언어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벤야민, 「번역가의 과제 」, 197에서 재인용)

번역을 둘러싼 이러한 담론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간의 단절과 대립을 자명한 명제로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양자 간의 연관성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 두 노선은 번역의 두 가지 전략으로서, 이 중 어떤 번역의 방식이 전면에 배치되는가는 한 언어-문화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번역에 부여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달라질 뿐임을 인정한다면, 양자 간의 차이와 반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다시 서론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베르만과 베누티는 각각 프랑스와 현대 영미 문화권에서 목격되는 자민족중심주의적 번역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낯선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한 "이국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구에서의 번역의 모습을 성찰하는 비판적 도구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www.kci.go.kr

다른 것을 '포섭', '합병'하려는 번역 방식에 대한 그들의 비판자체는 중요한 진실을 담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를 우리의 번역 상황에 대한 비판과 결합시키려면, 한국에서 번역이란 무엇을 의미했는지, 상황의 적확한 단면과 마주 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작업 없이 그들의 시각과 관점을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경험이 다른 두 시공간의 차이를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근대 초기 아시아에서의 번역 상황은 대체로 낭만주의 시대 독일에서 이루어진 번역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에게 근대는 서양의 담론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번역은 명실 공히 민족문학 형성을 위한 국민적 프로젝트로 인식되어, 많은 문인들이 번역에 투신하였다. 번역은 서구를 배우는 주된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아직 형성되지 못한 모국어에 새로운 구조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번역을 통해 모국어를 살찌운다는 계획은 원어의 강력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부추겼고[21], 이는 우리의 번역이 왜 베르만이나 베누티 식의 충실성을 표방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준다. 외국어와 외국 문학이 누리는 문화적 위광은 변두리 지식인들에게 원전에 대한 소심한 정확성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점과 폐단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기에, 원어에 대한 지나친 밀착은 번역의 주체어인 우리말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술 번역의 전형으로 인정받는 직역 일변도의 번역은 원전에 대한 지나친 경외심으로, 번역 본연의 임무인 낯선 것의 수용과 자기 것으로의 변용이라는 정체성 형성의 과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비윤리적인 번역가의 문제는 생각처럼 그리 간단히 정리되는 것도 아니다. 기존의 양분법이 갖는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에 대한 로빈슨(D. Robinson)의 다음과 같은 경고는 새겨들을 만하다.

---

21) 해외문학파 중의 한 명이었던 김진섭(1927)은 양주동과의 논쟁에서 "조선어가 서양의 그것과 대등한 문화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한 이상 고정한 형식이 없어 항상 동요하고 있는 우리글에 서양의 문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도 큰 참고가 되는 것"이라는 말로써, 문체마저도 서양에서 배워야 할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서은주 65에서 재인용).

www.kci.go.kr

> “동화의 번역과 외국화 번역이 수용 언어의 독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한 것도 아니며, 어느 쪽은 해롭고 어느 쪽은 이롭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 외국화주의자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암묵적으로 독자반응이 전제되어 있다. 즉 동화된 번역은 수용 언어의 ‘바로 그’ 독자의 정신을 둔화시키고, 문화의 차이를 점점 차단하고, 지각없이 헤게모니의 온화함을 강화한다. 외국화 번역은 수용 언어의 ‘바로 그’ 독자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고무하고, 문화의 차이를 새로이 평가하게 한다.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면, 이것은 동화된 번역이 독자를 (계속적으로) 식민화하고, 그 독자의 사고 속에 식민 헤게모니를 심는 반면에 외국화 번역은 독자를 탈식민화하고(하도록 도와주고), 식민 헤게모니를 약화시켜 식민지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적, 문화적 활동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의사소통의 현실에는 거의 기초를 두지 않는 추상적인 주장이다.”(172)

> “모든 동화의 번역이 단일한 형태로 모든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외국화 번역이 모든 독자들에게 단일한 형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로서 불가능해 보인다.”(173)

행여 이 글의 목적이 지금-여기에서도 계기만 주어지면 언제든 얼굴을 내미는 자국민중심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나, “번역의 윤리”가 일구어낸 진지한 성과를 성급하게 부정하자는 것으로 읽힌다면, 그것은 이 글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탓이다. 어정쩡한 절충론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겠지만, 이 글의 목적은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이냐 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각 입장의 연원과 맥락을 그 담론의 내부로부터 추적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고찰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성과가 더욱 내실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www.kci.go.kr

참고 문헌

김완균. 2000.「헤르더와 괴테, 그리고 세계문학 Weltliteratur」,『괴테연구』. 제 12권.

나병철 옮김, 2002,『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소명출판 (Homi Bhabha,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서은주. 2004.「번역과 문학 장(場)의 내셔널리티」,『현대문학의 연구』. 제 24집.

손주경. 2007.「16세기 프랑스의 '번역의 지평'」,『불어불문학연구』. 제 70호.

안미현. 2008.「독일 낭만주의에서의 언어, 번역, 해석」, 한국번역비평학회 월례 학술발표집: 2008-1월.

윤지관. 2001.「번역의 정치학: 외국문학 번역과 근대성」,『안과 밖』. 영미문학연구회. 제 10권.

윤형숙 옮김. 2002.『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Benedict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Verso.)

이희재 옮김. 2001.『번역사 산책』, 서울: 궁리 (Tsuji Yumi. 1993. *Honyahushi No Promendade by Tsuji Yumi*. Misuzu Shobo. Ltd.)

임성모 옮김. 2003.『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1998.)

임호경 옮김. 2006,『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서울: 열린 책들 (Lawrence Venuti,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임홍배. 2000.「괴테의 세계문학론과 서구적 근대의 모험」,『창작과 비평』, 107호.

정혜욱 옮김. 2002.『번역과 제국. 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서울: 동문선 (Douglas Robinson. 1997.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www.kci.go.kr

황현산, 김영옥 옮김. 2007.「번역가의 과제」,『번역 비평』, 창간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Walter Benjamin, 1923. “Die Aufgabe des Übersetzers”. Heidelberg.)

Ballard, Michel. [1992] 1995. *De Cicéron à Benjamin. Traducteurs, traductions, réflexions*. Lille: P. U. de Lille.

-----. 2006. “La Traduction: entre enrichissement et intégrité”, *La traduction, contact de langues et de cultures (2)*. Artois Presses Université.

Berman, Antoine. [1984] 1995. *L’épreuve de l’étranger: culture et traduction dans l’Allemagne romantique*. Paris: Gallimard.

-----. [1985]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Paris: Seuil.

-----. 1985. “La traduction et la langue française”, *Meta*, n° 30.

Du Bellay, Joachim. [1549] 1936. *La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Nelson [complété par l'édition Louis Humbert chez Garnier].

Lambert, José. 1989. "La Traduction". in M. Angenot (éd.). *Théorie littéraire: problèmes et perspectives*. Paris: PUF.

Mehrez, Samia. 1992. “The translation and the postcolonial experience: the francophone north african text". in L. Venuti (ed). *Rethinking Translation: Discourse, Subjectivity,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ounin, Georges. 1955. *Les belles infidèles*. Paris: Éditions du Sud.

Niranjana, Tejaswini. 1992. *Siting Translation: History, Post-Structuralism, and the Colonial Context*. Berkeley, CA: U. of California P.

Oustinoff, Michaël. 2007. *La traduction*. Paris: PUF.

Richard Jacquemond. 1992. “Translation and Cultural Hegemony: The Case of French-Arabic Translation”. in L. Venuti (ed). *Rethinking Translation: Discourse, Subjectivity, Ideolog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chleiermacher, Friedrich. [1813] 1999.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 et autre texte.* traduit de l’allemand par A. Berman et C. Berner. Paris: Seuil.

www.kci.go.kr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93] 2000. "The politics of translation". In L. Venuti (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teiner, George. [1975] 1998. *Après Babel: Une poétique du dire et de la traduction.* traduit par L. Lotringer et P.-E. Dauzat. Paris: Albin Michel.

Trivedi, Harish. 1999. "Introduction". in Bassnett and Trivedi (eds).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Van Hoof, Henri. 1991. *Histoire de la traduction en Occident*. Paris: Duculot.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Villey, Pierre. 1908. *Les sources italiennes de* la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de Joachim Du Bellay*, Paris: Champion.

Zuber, Roger. [1968] 1995. *Les "belles infidèles" et la formation du goût classique*. édition corrigée. Paris: Albin Michel.

www.kci.go.kr

[Abstract]

Aesthetics of Assimilation and Ethics of Difference: Two Approaches of Literary Translation

Seon, Yeong-A
(Ewha Womans University)

The translation of literature has developed revolving around two opposing approaches: Aesthetics of Assimilation which focuses on familiarizing foreign ideas using native terms of the prospective readers, and Ethics of Difference which tries to leave intact the unfamiliarity of foreign texts, highli대gh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ltures involved. The current debate centers on the question of Ethics. It is concerned with a realization that transl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cultural encounters of the globalized world, especially when the rein of globalization is in the grip of hegemonic language regions. A. Berman and L. Venuti criticize the ethnocentric strategy as an unethical practice, recommending another approach that "strategically" lets foreign elements stand out. This particular emphasis on Ethics of difference is derived from a serious contrition on the side of occidental world, after centuries of its ethnocentric translation of the non-occidental world.

It is undeniable that translation presents many ethical problems which need to be addressed. Nonetheless, if we suppose a universal ethics of translation, independent from the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the selection and translation of foreign texts take place, we are ignoring the fact that the social practice of translation is performed in a given context of a given culture.

Therefore, before we determine which translational practice is ethical and which isn't, we need to observe more closely how the Aesthetics of Assimilation and Ethics of Difference manifest themselves in the diverse cultural contexts, and how they organize the discourses regarding translation

www.kci.go.kr

and how they realize them. This will allow us to recognize that the difference in the mode of translation is simultaneously the difference in the relation that one establishes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and finally, the difference in the mode of existence of a given culture.

▸ Key Words: national literature, French Renaissance, Romantic Germany, appropriation, difference

선영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불학과 시간강사
yaseon@naver.com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사

논문투고일: 2008년 11월 5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

www.kci.go.kr